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의학석사 학위논문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영화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

A Commentary on  
the Film 『The Man Who Invented Christmas』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울산대학교대학원  
의학과  
신동준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영화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

지도교수    신 용 옥

이 논문을 의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의 학 과  
신 동 준

신동준의 의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성 윤	인
심사위원	정 석 훈	인
심사위원	신 용 욱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19년 8월

## 국문요약

영화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는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쓰는 동안 겪는 내면의 변화를 그리고 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도시 빈민이 늘어나고 크리스마스 전통이 잊혀 가던 빅토리아 시대에 쓰인 책이다. 찰스 디킨스의 이 책은 사람들에게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불어넣었고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만들었다. 본 논문은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영화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를 분석하여 영화의 주인공 찰스의 개인적 삶의 위기와 그림자 인식 과정을 다루었다. 또한 찰스 디킨스의 전기와 시대적 배경을 참조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집단적 문제가 찰스 개인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크리스마스는 죽음과 재탄생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화는 크리스마스를 통해 찰스가 자신의 마음 속 어둠을 인식하고 새로운 인격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

## 중심단어

크리스마스, 찰스 디킨스, 영화, 그림자, 아버지, 탄생

##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1
영화의 줄거리.....	3
영화에 나타난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고찰.....	5
찰스의 위기와 변화.....	5
찰스의 꿈과 아버지.....	9
스크루지.....	16
그림자.....	22
에로스의 결핍.....	27
자본주의와 스크루지.....	28
크리스마스.....	31
나가는 말.....	38
참고문헌.....	39
영문요약.....	43

## 들어가는 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마다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하다. 음식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는 상점에서 카드와 선물을 산다. 구세군 냄비의 딸랑거리는 종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렘과 따뜻함으로 물들인다. 그러나 찰스 디킨스의 책 『크리스마스 캐럴』이 출판되던 1843년에 크리스마스는 잊혀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았다. 도시에는 빈민들이 넘쳐나고 가족의 소중함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사라져갔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캐럴』은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사람들은 책의 내용을 따라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모여 칠면조 요리와 파이를 먹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 풍경이 된다.

찰스 디킨스는 19세기 초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올리버 트위스트』, 『데이비드 코퍼필드』, 『두 도시 이야기』, 『위대한 유산』 등 많은 소설을 남겼다. 그의 책은 당시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른다. 융(Jung)은 훌륭한 예술작품에는 집단적 무의식이 작가 개인의 삶으로 흘러들어 그 시대 전체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난다고 말한다.<sup>1)</sup> 작가는 삶을 통해 사회와 집단적 요소를 경험하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을 공유한다. 작가는 그만의 방식으로 집단의 질문에 반응하고 그 결과물을 작품에 담는다. 따라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가가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를 살펴보면 작가의 개별적 특성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적 요소와 집단적 무의식을 유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2017년에 개봉한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원제: ‘The Man Who Invented Christmas’)>는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창작하는 6주 동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화의 내용은 레스 스탠디포드(Les Standiford)의 동명의 논픽션 『The Man Who Invented Christmas』

---

<sup>1)</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b) : 융 기본 저작집 9 《인간과 문화》, 솔 출판사, 서울, p170.

을 원작으로 하였다. 각본은 수잔 코인(Susan Coyne)이, 감독은 마렛 넬러리(Bharat Nalluri)가 맡았다.

본 영화는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쓰면서 겪는 내면적 변화를 묘사하는데 이는 영화감독과 각본가가 찰스 디킨스의 전기를 토대로 상상을 덧붙여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영화가 찰스 디킨스의 삶과 시대적 배경을 실제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화는 여러 장점을 가진다. 먼저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객들은 영화를 통해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영화감독과 각본가를 비롯한 영화 제작자들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의도에 따라 시나리오를 쓰고 대사와 장면을 배치한다. 그들은 관객들이 영화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동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감정을 고려한다.<sup>2)</sup> 이 과정에서 영화에는 제작자들의 의식뿐 아니라 개인적 무의식이 투영되며 더 나아가 그들을 둘러싼 시대적 배경과 집단적 무의식이 반영된다. 민담과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사하게 영화는 동시대의 집단적 요소를 내포하게 되며 역사적인 소재는 시대적 맥락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 영화에서는 그 시대에 국한된 집단적 요소뿐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지속되는 신화적 모티프가 발견되기도 한다. 융은 영화는 표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징을 통해 집단적 무의식을 보여주기 좋은 수단이라고 하였다.<sup>3)</sup> 이조드(Izod)는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 전설이나 신화를 깊게 경험하게 되며<sup>4)</sup> 분석심리학적 관점이 “우리 시대의 신화”로 받아들여지는 영화 속에 흐르는 집단적 경험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고 하였다.<sup>5)</sup> 그는 또한 등장인물과 플롯과 같은 영화 내적인 요소뿐 아니라 영화 이전에 존재하는 자료를 참조하여 확충(amplification)의 방법을 적용하면 영화 내용의 상징적 의미를 찾

---

<sup>2)</sup> Izod J(2001) : *Myth, Mind and the Screen : Understanding the heroes of our t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1.

<sup>3)</sup> Jung CG/McGuire W edited(1984) : *Dream Analysis: Notes of the Seminar given in 1928-1930*, Routledge, London, p12.

<sup>4)</sup> Izod J(2001) : 앞의 책, p1.

<sup>5)</sup> Izod J(2001) : 앞의 책, pp7-8.



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sup>6)</sup>

영화는 이미지와 소리를 통해 책으로는 담기 어려운 생동감을 표현하여 사람들의 무의식의 콤플렉스를 활성화시키고 감정을 불러일으킨다.<sup>7)</sup> 영화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 또한 등장 인물의 꿈과 환상을 생생하게 그려 사람들이 찰스 디킨스의 내면의 갈등과 감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영화에 나타난 찰스 디킨스의 삶을 통해 시대의 흐름이 개인의 삶에 모여들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책이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 영화의 즐거리

영화 속에서 찰스 디킨스는 성공한 작가로 등장한다. 그는 자신이 쓴 소설들의 성공으로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작가지만 최근에 펴낸 세 편의 작품이 내리 실패하면서 출판사로부터 원고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다. 동료 작가로부터는 혹독한 비평을 듣고 아내의 새로운 임신 소식까지 접하게 된 찰스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러던 중 그는 하녀 타라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유령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고 크리스마스 유령 이야기에 대한 영감이 떠오른 찰스는 출판사를 찾아간다. 찰스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6주 만에 새로운 소설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출판사 직원은 불신의 눈초리로 대한다. 화가 난 찰스는 출판사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자신의 돈으로 책을 출판하겠다고 선언한다. 때마침 찰스의 아버지가 빈털터리 신세로 집을 찾아오고 그는 무능력한 아버지가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집에 묵게 한다. 찰스가 서재에 틀어박혀 새로운 소설을 구상하는 동안 소설 속 주인공인 스크루지와 스크루지의 동업자

---

<sup>6)</sup> Izod J(2001) : 앞의 책, p7.

<sup>7)</sup> Hockley L(2007) : *Frames of mind: A Post-Jungian Look at Cinema, Television and Technology*, Intellect Ltd., Chicago, p45.

었던 말리의 유령이 나타난다. 곧이어 크리스마스 유령들이 나타나는데 유령들은 찰스에게 말을 건다. 찰스는 스크루지와 크리스마스 유령들과 대화하며 불행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빗을 갠지 못해 붙잡혀 간 아버지 대신 어둡고 추운 구두약 공장에서 돈을 벌어야 했고 이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미워하게 된 것이다. 복잡한 감정들에 휩싸인 찰스는 아버지에게 크게 화를 내고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는다.

찰스는 좀처럼 소설을 완성하지 못한다. 소설 속에서 스크루지에게는 최소한의 봉급만을 주는 부하 직원 크라켓이 있는데 그는 꼬마 팀이라는 몸이 아픈 아들이 있다. 가난한 크라켓은 꼬마 팀의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찰스는 그렇게 꼬마 팀을 죽도록 하여 서둘러 소설을 끝마치려 한다. 소설의 전개를 들은 하녀 타라와 친구 포스터는 꼬마 팀을 죽게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시간 내에 소설을 완성하지 못하여 실패한 작가가 될까 불안에 휩싸인 찰스는 타라와 아내에게 화풀이하고 타라를 집에서 내쫓아버린다. 찰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과 마주하며 지금은 허물어진 이전 구두약 공장을 방문한다. 공장에서 그는 스크루지를 만나고 스크루지가 바로 자신의 상처이자 “얼룩”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무덤 속에 갇혀 죽음을 마주한 스크루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매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겠다고 말려달라고 애원하게 된다. 갑작스러운 스크루지의 변화로 소설에서 꼬마 팀을 살릴 수 있게 된 찰스는 소설을 끝마친 후 쫓아냈던 하녀 타라, 그리고 아버지와 재회한다. 찰스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 행복한 파티를 즐긴다.

## 영화에 나타난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고찰

### 찰스의 위기와 변화

성공한 작가로 미국 여행을 간 찰스는 자신을 위해 준비된 환영 무대에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에 기분 좋게 화답한다. 그러나 그는 갑작스러운 축포 소리에 깜짝 놀라 넘어지고 우쭐했던 기분은 곧 불안으로 바뀐다.

영화에서 환호로 가득 찬 무대는 찰스가 성공한 작가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찰스가 축포 소리에 놀라 넘어지는 장면은 그가 불안정하며 성공한 작가로서의 명성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말해준다. 영국에 돌아온 찰스는 잇따른 책의 실패를 겪고 작가로서의 평판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출판사는 그의 능력을 의심하고 찰스는 자신에게서 영감이 떠나버렸다고 괴로워한다. 폰 프란츠(von Franz)는 개인에게 위기가 닥치고 자아가 정체되면 숨겨져 있던 갈등이 드러난다고 하였다.<sup>8)</sup> 에딩저(Edinger)는 개인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팽창된 기대”가 좌절된다고 하였다.<sup>9)</sup> 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아의 태도이다. 샌포드(Sanford)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자아가 내적 중심과 접촉”을 잃지 않으면 창조성이 발휘되어 힘든 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하였다.<sup>10)</sup> 문제는 자아가 내적 중심을 잃고 외적인 페르조나만을 지키려고 할 때 발생한다. 찰스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출판사 직원에게 화를 내고 출판사 도움 없이 책을 출판할 수 있다며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새 옷을 사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옷을 잘 입어야 상대에게 믿음을 준대.” 옷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도구이며 분석심리학적으로는 페르조나를 의미한다. 찰스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대신 페르조나에

---

<sup>8)</sup> von Franz ML(1995) : *Shadow and Evil in Fairy Tales*, Shambhala, Boulder, pp37-38.

<sup>9)</sup> Edinger EF/장미경 옮김(2016) : 《자아발달과 원형》, 학지사, 서울, p57.

<sup>10)</sup> Sanford JA/심상영 옮김(2018) : 《융 심리학과 신비로운 기독교》,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pp280-281.

눈을 돌린다. 그러나 융은 “자아가 페르조나와 동일시하면 할수록 외향화된 의식의 눈에 내면 세계가 어둡고 보이지 않게 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유약함을 그만큼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sup>11)</sup>

찰스는 성공한 작가이지만 한편으로 자선가이기도 하다. 가난한 사람들에 연민을 가지고 후원 행사에서 연설도 한다. 친구 포스터가 당분간 행사 요청을 거절하고 책을 쓰는데 전념하라고 조언하자 찰스는 누군가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거절하나며 포스터에게 화를 낸다. 찰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쓸모없다고 말하는 신사와 논쟁을 하기도 한다. 그는 어린아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을 혼내러 뒤쫓아가기도 하고 동업자의 장례를 오래 치른다고 화내는 사람을 보며 불쾌해하기도 한다. 출판사 직원이 “더 이상 크리스마스 책은 돈이 되지 않는다.”며 걱정하자 찰스는 출판사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생각 없는 인간들 같으니. 돈에 미친 혐오스러운 작자들!”이라고 화를 낸다. 이들은 모두 찰스에게 불쾌함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킨다. 융은 어떤 사람의 분노, 혐오감, 경멸의 마음을 분석해보면 그 뒤에 그림자가 숨어 있다고 하였다.<sup>12) 13)</sup> 그림자는 무의식의 열등한 측면이며 주로 바깥 대상에 먼저 투사된다.<sup>14)</sup> 영화에서 찰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절대 거절하지 않으며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비난한다. 융은 “인습적인 적응의 가면 밑”에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고 말하였다.<sup>15)</sup> 찰스의 도덕적인 태도 전체를 페르조나로 보고 돈을 밝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모두 그림자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돈에 대한 일이라면 우선 화부터 내는 찰스의 태도는 돈이 그림자와 관련이 있는 콤플렉스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양초를 아끼라고 잔소리하는 찰스에게 아내는 이렇게 답한다. “당신은 거지만 보면 돈을 주고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고

---

<sup>11)</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a): 융 기본 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솔 출판사, 서울, p103.

<sup>12)</sup> Jung CG 엮음/이부영 외 옮김(2013):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p188.

<sup>13)</sup> 이부영(1999): 《그림자》, 한길사, 파주, p92.

<sup>14)</sup> 이부영(1999): 앞의 책, pp89-94.

<sup>15)</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a): 앞의 책, p257.

가구들까지 사들이면서 나한테는 초 아끼라고 잔소리하다니.” 찰스는 아내의 말처럼 집을 화려하게 꾸미느라 프랑스식 벽지에 새로운 문과 블라인드, 책장을 구입하고 화려한 샹들리에까지 매단다. 그러면서 그는 신사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쓰는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위기를 맞은 찰스에게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다. 찰스는 새로 고용된 하녀 타라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정령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고 이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낀다. 유령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찰스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하는데 타라는 아일랜드에서 할머니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이승과 저승의 벽이 얇아져서 저세상 유령들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대요.” 타라는 찰스의 아니마를 자극하는 인물이다. 아니마는 남자에게 창조적인 환상과 예술적인 영감을 불러 일으킨다.<sup>16)</sup> 페르조나가 외적 인격이라면 아니마는 남성의 내적 인격에 해당하며 자아가 페르조나와 동일시하면 할수록 내면에서는 아니마가 자아를 더욱 끌어당긴다.<sup>17)</sup> 만약 남자가 아니마에 사로잡히면 그는 목표를 향해 무모하게 돌진하며 맹목적이고 강박적으로 변한다.<sup>18)</sup> 자신에게서 영감의 ‘마술 램프’가 사라졌다며 불안해하던 찰스는 새로운 소설의 영감이 떠오르자 자비로 새 책을 출판하겠다고 무모한 일을 벌인다. 포스터가 말려보지만 그는 “이렇게 뭔가 쓰고 싶은 건 처음이야.”라며 낭만적인 기분에 휩싸인다.

찰스는 스크루지를 만들어낸다. 스크루지는 찰스가 현실 속 인물들에 투사했던 다양한 형상들이 집약된 인물이다. 출판사 직원, 보육원 후원 행사에서 만난 신사, 무덤에서의 사업가 등 찰스가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했던 인물들을 모두 담고 있다. 찰스가 ‘스크루지’라는 이름을 생각해내어 스크루지라는 환상의 인물이 나타나도록 하는 영화의 장면은 적극적 상상의 기법을 떠올리게 한다. 융은 적극적 상상이란 “일련의 환상을 의도적인 집중으로 현재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9)</sup> 스크루지는 찰스가 책을 쓰기 위해 만든 허구의

---

<sup>16)</sup> von Franz ML/이부영, 이광자 옮김(2018):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융연구원, 서울, p126.

<sup>17)</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a): 앞의 책, p103.

<sup>18)</sup> Jung CG(1955): “IV. Rex and Regina”,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ume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 539.

<sup>19)</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융 기본 저작집 2 《원형과 무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융이 말한 적극적 상상과는 다른 점이 있다. 적극적 상상의 목적이 상징적 인물과 “상징적 대화”를 함으로써 “무의식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sup>20)</sup> 찰스의 스크루지는 책 내용의 완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식의 산물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 스크루지가 소설 속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찰스와 대화를 하며 찰스에게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각본가가 스크루지를 찰스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찰스는 스크루지에게 단어연상검사를 한다. 찰스가 어둠, 사랑, 돈, 아이들, 구빈원의 단어들을 제시하자, 스크루지는 어둠은 ‘저렴하다’, 사랑은 ‘사기’, 돈은 ‘안전’, 아이들은 ‘쓸모없다’, 구빈원은 ‘쓸모 있다’라고 지체 없이 답한다. 스크루지는 양초를 쬐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고<sup>21)</sup>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일을 시킬 수 있는 구빈원은 유용하나 아이들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다. 스크루지는 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사랑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다른 단어들과는 달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는 콤플렉스 반응을 보인다. 스크루지는 당황하며 “크리스마스?”라고 반문하며 반응시간의 지연, 자극어 반복, 특이한 감정 반응 등 소위 콤플렉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인다.<sup>22)</sup> 뒤늦게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가 “헛소리”라며 “쉬면서 월급을 받는 날”이지만 본인에게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라고 말한다. 융은 콤플렉스가 고유한 정신적인 삶의 현상이며 무의식이 존재하고 살아 있다는 것은 오직 콤플렉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한다.<sup>23)</sup> 이부영은 콤플렉스를 의식화하는 것은 “인격 성숙에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sup>24)</sup> 무의식의 콤플렉스가 “의식을 자극”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지만 이 또한 “콤플렉스가 의식 속에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며 “나와 가까워지

---

식》, 솔 출판사, 서울, p165.

<sup>20)</sup> von Franz ML(1995): 앞의 책, p89.

<sup>21)</sup> Dickens C/Hearn 주석/윤혜준 옮김(2011): 《주석달린 크리스마스 캐럴》, 현대문학, 서울, p173.

<sup>22)</sup> 이부영(2011):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p64.

<sup>23)</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1): 융 기본 저작집 1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 출판사, 서울, pp238-239.

<sup>24)</sup> 이부영(2011): 앞의 책, p71.

기를” 바라기 때문이다.<sup>25)</sup> 스크루지가 보이는 반응은 스크루지에게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콤플렉스가 있으며 찰스의 그림자 측면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 찰스의 꿈과 아버지

영화에서 찰스는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을 꿈으로 경험한다. 영화에 나오는 꿈은 각본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찰스의 꿈을 실제 개인의 꿈처럼 보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본가는 꿈이 의식이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 즉 무의식에서 기원한다는 것<sup>26)</sup>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화에서 찰스는 과거 기억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는 꿈에서 깨면서 불안을 느끼고 그저 나쁜 꿈을 꾸었다고 말하며 꿈을 무시하려고 한다. 찰스가 꿈을 통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맞닥뜨리는 장면은 심리학적으로 자아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무의식의 콤플렉스가 꿈의 형태로 의식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찰스의 꿈을 그의 콤플렉스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영화에서 찰스는 세 번의 꿈을 꾸다. 영상으로 묘사되는 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꿈1. 꿈에서 그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다. 마술사 모자를 쓴 아버지는 찰스와 아이들에게 영사기로 그림을 비추어 준다. 찰스는 천사의 그림에 신비로움을 느끼며 즐거워한다. 그러나 다음으로 어두운 유령의 그림이 나타나자 찰스는 두려움을 느낀다. 아버지는 찰스를 달래려 하지만 두려운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

<sup>25)</sup> 이부영(2011): 앞의 책, p71.

<sup>26)</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1): 앞의 책, pp182-183; p239.

꿈2. 어린 찰스는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찰스의 아버지는 축복의 말을 한다. “칠면조 요리 향이 온 집안에 퍼지네. 오늘도 서로 가득 사랑의 향기로 살자.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길(And may God bless us everyone).” 찰스는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함께 읊조린다. “...everyone.”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이닥친다. 아버지는 부채 채납을 이유로 붙잡혀 가고 집안 식기들은 압류당한다. 찰스는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아버지는 체포되고 혼란 속에서 아버지의 영사기가 바닥으로 넘어진다.

꿈3.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은 마차에 갇혀 있다. 찰스는 마차의 쇠창살 사이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떨어지기 힘들어한다. “너도 다 컸어, 찰리. 이젠 네가 가장이야. 앞으로 모험이 펼쳐질 거야. 아마 우린 생각나지도 않을 거야.” 떠날 시간이 되자 아버지는 울고 있는 찰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말한다.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당당하게 살아. 강철처럼 강하게, 얼음처럼 냉정하게(Blood of iron, heart of ice). 그리고 기억해. 넌 존 디킨스, 신사의 아들이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해!” 가족들을 태운 마차는 떠나고 찰스는 혼자 구두약 공장에 남겨진다. 찰스는 울먹이면서 아버지의 말을 반복한다. “강철처럼 강하게, 얼음처럼 냉정하게.”

영화에서 꿈들은 찰스의 어린 시절을 보여준다. 융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리비도가 내면으로 흐르는 내향화(Introversion)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퇴행(Regression)이 일어난다고 말한다.<sup>27)</sup> 융에 따르면 리비도는 “근원적 성격”과 “뿌리”를 되찾기 위해 어린 시절의 관계를 재현하여 자신의 근원을 직면할 기회를 제공한다.<sup>28)</sup> 그는 내향화와 퇴행

---

<sup>27)</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a) : 융 기본 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pp212-216; p388.

<sup>28)</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앞의 책, pp249-250.



을 통해 활성화되는 원형은 “그때그때 닳친 위기상황의 원상(源像, Urbild)”<sup>29)</sup>으로 기억을 재료로 활성화되어 의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sup>30)</sup> 찰스의 꿈에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들이 나타난 것은 찰스가 겪고 있는 위기가 내적으로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첫 번째 꿈을 꾸기 전 아내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게 되어 찰스가 아버지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 커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작품의 잇따른 실패는 가족의 경제적인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무능력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불러온다.

세 번째 꿈에서 아버지는 찰스에게 “신사의 아들”로 살아야 한다면서 “강철처럼 강하게, 얼음처럼 냉정하게” 살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내지 못한 현실적이고 냉정한 남성상, 즉 자신의 그림자를 찰스에게 부과했고 찰스는 아버지가 남긴 무모함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다. 찰스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그는 낭만적이고 유쾌한 사람이지만 현실성이 부족하여 위기에 처하더라도 미래를 낙관하며 일이 저절로 해결되기만을 기다린다. 찰스는 아버지가 돈을 헤프게 쓰고 무모하게 산 탓에 가족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미워한다. 찰스의 마음에서는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이 잊혀지고 해결해야 할 아버지의 그림자로 스크루지가 자리 잡게 되었다.

무능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부정적 부성 콤플렉스를 가진 아들의 무의식에는 보상적으로 긍정적인 부성상이 배열된다. “아버지라면 이래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아들은 과보상된 부성상에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한다.<sup>31)</sup>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고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강박적인 태도를 보이며 도덕적으로 경직되기도 한다.<sup>32)</sup> 영화에서 찰스는 아버지를 “삶의 족쇄이자 쇠사슬”이라고 표현하고 글이 잘 쓰이지 않자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다시는 글을 쓰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데 이는 찰스의 강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찰

---

<sup>29)</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a): 앞의 책, p216.

<sup>30)</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a): 앞의 책, p214.

<sup>31)</sup> 박신, 김계희(2015): 《부성 콤플렉스 - 분석심리학적 이해》, 학지사, 서울, pp53-55.

<sup>32)</sup> 박신, 김계희(2015): 앞의 책, pp53-54.

스는 아버지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sup>33)</sup> 자신이 직업적인 실패를 겪어 아버지의 모습을 재현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영화에서 어린 찰스가 아버지의 체포로 인해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경험은 『크리스마스 캐럴』의 작가인 찰스 디킨스의 개인사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찰스 디킨스가 열두 살이 되던 해 아버지 존 디킨스는 채무 불이행으로 감옥에 갇혔다. 이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6개월 동안 워렌 구두약 공장에서 일해야 했는데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공장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했다고 한다.<sup>34)</sup> 당시의 힘들었던 기억은 그의 작품 『데이비드 코퍼필드』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sup>35)</sup> 찰스 디킨스와 영화에서의 찰스가 겪었던 아버지와는 같은 개인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한다. 조야(Zoya)는 서구사회의 산업혁명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붕괴시켰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36)</sup>

“여성들과 아이들을 선호하는 산업화의 새로운 상황은 불멸의 존재로 여겨졌던 아버지에게 커다란 타격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그의 권위가 닿을 수 없는 공장으로 멀어졌고, 이곳에서 새로운 위계질서를 습득했다. 공장이 요구하는 외적인 위계질서는 아버지의 엄격함을 차용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베푸는 다른 특징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아내나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는 아버지의 위상에 커다란 상처를 내었다.”<sup>37)</sup>

수공업이나 목수, 대장장이와 같은 전문 직업 능력을 갖추고 있던 아버지들은 산업화로 인해 공장에서 단순 노동자로 일하게 되면서 직업적인 자부심을 잃었고 가족의 경제

---

<sup>33)</sup> 박신, 김계희(2015): 앞의 책, p56.

<sup>34)</sup> Pearson H/김일기 옮김(2017): 《찰스 디킨스 런던의 열정》, 랜데테로, 서울, p19.

<sup>35)</sup> Dickens C/김옥수 옮김(2018): 《데이비드 코퍼필드 1》, 비꽃, 서울, pp255-278.

<sup>36)</sup> Zoya L/이은정 옮김(2009): 《아버지란 무엇인가》, 르네상스, 서울, p298.

<sup>37)</sup> Zoya L/이은정 옮김(2009): 앞의 책, p299.

를 책임진다는 아버지의 위상도 추락했다. 조야는 19세기 산업혁명기 아버지들이 경제적 부양자의 지위뿐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위상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sup>38)</sup>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게 되었고 무능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많은 아버지가 우울함에 빠지고 가족 안에서 담당하던 정신적인 역할을 잃으며 “불량한 아버지”가 되었다.<sup>39)</sup> 이렇게 한 번 추락한 아버지의 위상은 회복하기 어려웠다. 아버지가 담당하던 위계와 제도는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수평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문화가 등장했다. 조야는 프랑스 혁명에서 왕이 단두대로 끌려간 것과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40)</sup> 아버지는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일 뿐 정신적 가치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없었고 “도덕적 원칙보다 시장의 경쟁원칙”에서 살아남아야 했다.<sup>41)</sup> 영화에서 찰스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미움과 부끄러움의 감정은 이러한 19세기 영국의 아버지상을 반영한다. 아버지의 위상은 추락하고 찰스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공장으로 내몰리며 갑작스럽게 가정의 자리를 물려받는다. 아버지는 아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아버지의 정신적 가치는 잊혀지고 만다.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아이의 정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찰스에게 아버지는 부정적이지만 한 존재가 아니며 찰스의 꿈에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긍정적인 면이 등장한다. 첫 번째 꿈에서 아버지는 찰스에게 유령뿐 아니라 천사 그림도 보여주며, 어린 찰스는 천사 그림을 보고 신비로운 감정을 느낀다. 두 번째 꿈에서 찰스는 가족 식사에서 아버지가 했던 축복의 말을 기억한다. 자신의 힘으로 책을 출판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옷을 잘 입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하던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새 옷을 사 입는다. 여동생이 찰스의 집에 찾아왔을 때 찰스와 여동생은 평소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한다.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가치가 있다.”

---

<sup>38)</sup> Zoya L/이은정 옮김(2009): 앞의 책, p303.

<sup>39)</sup> Zoya L/이은정 옮김(2009): 앞의 책, p305.

<sup>40)</sup> Zoya L/이은정 옮김(2009): 앞의 책, pp305-306.

<sup>41)</sup> Zoya L/이은정 옮김(2009): 앞의 책, pp437-442.

용은 부모의 마술적인 힘이 단지 개인적인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비 개인적인 형태로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한다.<sup>42)</sup>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에 실제 아버지가 기여하는 것은 일부분일 뿐이며 개인적 “아버지 뒤에는 아버지 원형”이 있다.<sup>43)</sup> 첫 번째 꿈에서 찰스의 아버지는 “나는 네크로맨서(necromancer)다.”라고 말하며 마술사 모자를 쓴다. 네크로맨시(Necromancy)는 '죽은 자와 소통하는 행위'를 뜻하며, 가장 오래된 의식(儀式)은 기원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sup>44)</sup> 호메로스(Homer)의 『오디세이(Odyssey)』에서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자 조언을 구하기 위해 혼백을 불러내는 의식을 행한다.<sup>45)</sup>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두드러졌던 샤머니즘에서도 죽은 자와 관계를 맺는 의식이 발견된다.<sup>46)</sup> 샤머니즘을 믿는 부족의 사람들은 영혼을 빼앗기거나 길을 잃으면 질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고 샤먼은 병자의 몸에서 악령(惡靈)을 쫓아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되돌려놓는 자라고 보았다.<sup>47)</sup> 원시 사회에서 샤먼은 죽은 자의 세계와 연결된 영혼의 인도자이자 치유자였다.<sup>48)</sup> 분석심리학에서 저승은 의식이 알지 못하는 세계, 즉 무의식을 의미하며<sup>49)</sup> 죽은 자를 불러내는 행위는 “의식이 무의식의 심층으로 향하는 내향화”를 의미한다.<sup>50)</sup> 아버지가 찰스에게 유령 그림을 보여주자 찰스는 공포를 느끼며 손으로 눈을 가린다. 용은 유령이 무의식의 콤플렉스를 나타낸다고 보았다.<sup>51)</sup> 콤플렉스에 공포를 느끼게 될 때 의식은 어떻

<sup>42)</sup> Jung CG(1949) : “The Significance of the Father in the Destiny of the Individual”,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ume 4, Freud and Psycho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 728.

<sup>43)</sup> 박신, 김계희(2015) : 앞의 책, p26.

<sup>44)</sup> Kapcár A(2015) : “The Origins of Necromancy or How We Learned to Speak to the Dead”, *Sacra*, 13(2) : pp30-58.

<sup>45)</sup> Homer/천병희 옮김(2015a) : 《오뒷세이아》, 숲, 파주, pp264-265.

<sup>46)</sup> Eliade M/이윤기 옮김(1996) : 《샤머니즘》, 까치글방, 서울, p24.

<sup>47)</sup> Eliade M/이윤기 옮김(1996) : 앞의 책, p205.

<sup>48)</sup> 이부영(2012) :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파주, p420.

<sup>49)</sup> Jung CG, Jaffé A/이부영 옮김(2012) : 《C. G. 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파주, p399.

<sup>50)</sup> Jung CG(1935) : “The Tavistock Lectures”,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ume 18, The Symbolic Life: Miscellaneous Writing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 80.

<sup>51)</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1) : 앞의 책, p238.

게든 콤플렉스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는 그것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다.<sup>52)</sup> 찰스의 아버지는 ‘네크로맨서’로서 찰스의 무의식에 숨어 있는 유령, 즉 무의식의 콤플렉스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찰스의 자아가 꿈과 무의식의 콤플렉스를 “단지 그것일 뿐”의 태도로 대하면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sup>53)</sup>

영화에는 촛불이 종종 등장한다. 촛불은 현실과 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꿈을 꾸기 전 찰스는 불안한 눈빛으로 촛불을 응시하는데 곧 촛불의 형상은 꿈에서 아버지가 비추어주는 영사기의 빛으로 바뀐다. 기독교 역사에는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촛불을 켜는 풍습이 있었다. 이때 촛불은 삶과 죽음, 재생으로 이어지는 순환을 상징하며 동시에 의식의 불빛을 나타낸다.<sup>54)</sup> 폰 프란츠는 부활절의 촛불이 “마음의 깨달음”을 나타낸다고 말하였다.<sup>55)</sup> 샌포드는 “자신의 내적 과정에 대한 모든 통찰은 빛을 생 기계 하며, 모든 통찰은 빛의 산물”이라고 말한다.<sup>56)</sup> 그는 초를 자아에 비유하며 “초 그 자체는 불꽃을 만들 수 없지만, 다른 것으로 불을 붙이면 그것이 밝게 타오르게 된다.”고 하였다.<sup>57)</sup> 심리학적으로 초는 자아이며 촛불은 자아가 자기와 맞닿아 의식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과거 유령을 만날 때 찰스를 급히 깨우는 스크루지의 손에 촛불이 들려 있다. 영화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는 크리스마스 과거 유령이 촛불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크리스마스 과거 유령의 머리에서 “밝은 빛줄기”가 솟아나고 팔에는 “촛불 소등기”와 같은 모자가 끼

---

<sup>52)</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1): 앞의 책, p239.

<sup>53)</sup> von Franz ML/이부영, 이광자 옮김(2018): 앞의 책, pp105-107.

<sup>54)</sup> Archive for Research in Archetypal Symbolism(ARAS)(2010) : *The Book of Symbols. Reflections on Archetypal Images*, Taschen, Koln, p580.

<sup>55)</sup> von Franz ML(1980) :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Redemption Motifs in Fairytales*, Inner City Books, Toronto, p35.

<sup>56)</sup> Sanford JA/심상영 옮김(2018): 앞의 책, p298.

<sup>57)</sup> Sanford JA/심상영 옮김(2018): 앞의 책, pp280-281.

워져 있다.<sup>58)</sup> 소설에서 크리스마스 과거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잊혀진 과거 기억을 되살린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스크루지가 자신의 과거를 다시 만나듯이 영화에서는 찰스가 꿈의 형태로 어린 시절 기억을 만난다. 촛불은 무의식 속에 잠겨 있던 과거 기억과의 접촉을 상징하며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꿈을 통해 찰스는 자신의 삶을 통찰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 스크루지

스크루지와 유령들은 찰스를 편하게 두지 않는다. 찰스 앞에 말리 유령이 나타나는데 그는 스크루지의 죽은 동업자로 생전에 스크루지처럼 인색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말리 유령은 스스로 만든 쇠사슬에 몸이 묶여 있다. 말리가 찰스에게 묻는다. “쇠사슬이 온몸을 감고 있어서 고통스럽지?” 찰스는 소설 속 인물인 말리가 스크루지가 아닌 작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에 당황해서 스크루지를 가리켜보지만 말리는 “아니, 자네 말일세. 쇠사슬이 온몸을 조이는군.”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리 유령은 스크루지가 아닌 찰스에게 말을 건다. 스크루지 대신 찰스가 소설에 참여하는 상황은 크리스마스 과거 유령을 만날 때도 반복된다. 크리스마스 과거 유령이 따라오라고 손짓하자 스크루지는 자기 대신 찰스를 데려가라고 한다. 찰스는 책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며 거부하지만 스크루지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작가잖아. 안 그래?” 찰스는 쇠사슬에 묶여 있음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기 두려워한다. 하지만 찰스는 결국 유령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만나게 된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찰스는 자신이 소설의 주인공이 된 듯 괴로워하고 스크루지는 작가가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운다. 찰스는 불쾌해하며 자기가 작가라고 주장해보지만 스크루지는 “네 주장으로는 그렇지.”라고 한다. 찰스는 스크루지와 유령을 소설 속 인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하지만 그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

<sup>58)</sup> Dickens C/Hearn 주석/윤혜준 옮김(2011): 앞의 책, p191.

영화에는 크리스마스 현재 유령과 함께 꼬마 팀이 등장한다. 꼬마 팀은 스크루지의 부하 직원 크라치의 아들인데 몸이 아파 목발을 짚고 다니는 모습으로 나온다. 꼬마 팀과 그의 가족들은 행복한 모습이다. 크리스마스 현재 유령은 스크루지가 크라치의 처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스크루지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가족을 봐. 그들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행복하고 감사해하며 만족하잖아. 반면에 당신은 비참하고 어떤 것에도 만족할 줄 모르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찰스는 갈수록 스크루지를 닮아간다. 스크루지는 소설이 너무 일방적이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찰스는 스크루지의 목소리를 무시한다. 그러나 찰스는 그의 그림자에 사로잡혀간다. 찰스는 가족 식사에 참여하지 않으며 과거를 추억하는 어머니에게는 냉소적인 말로 쏘아붙이고 아내에게는 차가운 태도를 보인다. 서재의 거울을 보며 찰스는 스크루지의 표정과 말투를 흉내 낸다. 찰스는 스크루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는데 그럴수록 그는 더 스크루지를 닮아간다. 융은 “그림자를 그 개체의 의식된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림자는 더욱더 검고 길다.”고 하였다.<sup>59)</sup> 샌포드는 우리가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60)</sup> 또한 그림자를 보지 않을 때 정신은 그림자에 압도되기 쉬워지고<sup>61)</sup> “우리가 거부한 것이 어두운 힘이 되어 되돌아온다”고 하였다.<sup>62)</sup>

크리스마스 미래 유령은 가난과 병으로 죽게 되는 꼬마 팀의 미래를 보여준다. 찰스로부터 소설의 결말을 들은 타라와 포스터는 꼬마 팀을 살려야 한다고 찰스를 설득한다. 그러나 찰스는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온 스크루지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

<sup>59)</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7) : 융 기본 저작집 4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숲 출판사, 서울, p115.

<sup>60)</sup> Sanford JA/심상영 옮김(2015) : 《융 심리학 · 악 · 그림자》,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pp.104-105

<sup>61)</sup> Sanford JA/심상영 옮김(2015) : 앞의 책, p105.

<sup>62)</sup> Sanford JA/심상영 옮김(2015) : 앞의 책, p198.

꼬마 팀의 죽음이 어쩔 수 없는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을 결말 짓지 못하는 찰스는 초조해하고 때마침 아버지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집에 들어오자 분노를 터뜨리며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낸다. 방문을 닫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는 찰스에게 스크루지는 “바로 그거야. '강철처럼 강하게. 얼음처럼 냉정하게!' 이제 책을 끝낼 수 있겠군.”이라고 말한다. 이제 스크루지는 찰스를 떠나지 않고 쫓아다니고 서재는 소설 속 인물들로 가득 찬다. 찰스가 그들을 피해 혼자 외출을 해보지만 스크루지는 줄곧 찰스를 따라온다. 찰스는 점점 냉정하고 예민해진다. 찰스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포스터를 해고하고 그가 쓴 사랑의 시는 한심하다며 비웃는다. 집 앞 쓰레기통을 뒤지며 찰스의 서명을 찾아 팔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찰스는 “저리 가요. 보기만 해도 역겨워요. 아버지는 내 삶의 족쇄이자 쇠사슬일 뿐이에요.”라며 독설을 퍼붓는다.

찰스가 그림자에 사로잡히는 과정에서 서재는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장소이다. 찰스는 서재에서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며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면 예민하게 반응한다. 타라가 난롯불을 확인하러 서재에 들어오자 찰스는 크게 화를 낸다. 아버지가 양초를 빌리러 방문을 두드렸을 때도 그는 화에 휩싸인다. 아내는 서재에 출입하지도 못한다. 서재는 그에게 다른 가족들과 분리된 자신만의 공간이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서재로 돌아온 찰스는 자신을 비웃는 스크루지에게 냉소적이라며 비난하고 스크루지는 자신을 돌아보라며 찰스가 위선자라고 비난한다. 그 순간 타라가 방문을 두드리자 찰스는 타라에게 화풀이를 하며 그를 집에서 내쫓아버린다. 이후 찰스는 분노에 사로잡혀 스크루지와 싸움을 벌인다. 서재의 온갖 물건들을 부수며 고향을 지르고 방을 난장판으로 만든다. 찰스가 서재에 고립된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림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폰 프란츠는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외로운 상황에 부닥칠 때 악에 쉽게 사로잡힌다고 말한다.<sup>63)</sup> 오랫동안 고립된 환경에 머무르는 사람은 내부에 “정신의 무의식적 측면이 축적되면서” 무의식의 자율적인 콤플렉스가 활성화된다고 하였다.<sup>64)</sup> 의식이 약해지면 무의식의 자율적인 콤플렉스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그는 원시인이 귀령과의

---

<sup>63)</sup>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p183-184.

<sup>64)</sup>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p183-184.



접촉이라고 여겼던 일종의 정신 장애를 겪게 된다.<sup>65)</sup> 융은 그림자와의 만남을 연금술 용어 ‘니그레도(nigredo)’로 설명했다.<sup>66)</sup> 연금술에서 니그레도는 화학적 변화의 과정에서 원소들이 분해된 상태를 가리키며 용해(solution), 분리(separation), 분할(division), 부패(putrefaction)와 같은 용어로 표현된다.<sup>67)</sup> 융은 그림자를 통찰하려는 사람은 종종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리며 갈등에 빠지기 쉽다고 하였다.<sup>68)</sup>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작업의 고통을 기술하며 니그레도를 카오스, 멜랑콜리아와 같은 이름으로 불렀다.<sup>69)</sup> 융은 “그림자를 대면하면 먼저 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도덕적 결정을 방해하고 확신을 무효로 만들며 심지어 확신이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진다.”고 하였다.<sup>70)</sup> 찰스는 그림의 상황에서 니그레도의 과정을 겪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혼란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영화에는 까마귀가 등장하는데, 까마귀는 니그레도의 출현을 알리는 상징으로 이용된다.<sup>71)</sup> 찰스의 아버지는 아이들 선물로 까마귀를 사 오고 찰스는 까마귀를 보며 불쾌해한다. 늙은 하녀는 까마귀가 불운과 죽음을 뜻한다면서 까마귀를 내쫓으려고 하고 까마귀는 집안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연금술사들은 까마귀를 악마의 비유로 여겼고 기독교에서 까마귀는 악의 원칙을 대표하는 동물이었다.<sup>72)</sup> 대홍수 때 육지가 수면 위로 드러났는지

---

<sup>65)</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b) : 융 기본 저작집 6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pp146-150.

<sup>66)</sup> Jung CG(1955) : “V. Adam and Eve”,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ume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 646.

<sup>67)</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b) : 앞의 책, p20.

<sup>68)</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a) : 앞의 책, pp209-210.

<sup>69)</sup> Jung CG(1955) : “VI. Conjunction”,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ume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 708.

<sup>70)</sup> Jung CG(1955) : “VI. Conjunction”,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ume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 708.

<sup>71)</sup> von Franz ML/이부영, 이광자 옮김(2018) : 앞의 책, p190.

<sup>72)</sup> Jung CG(1955) : “VI. Conjunction”,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ume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 742.

알아보려고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 보냈지만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돌아오지 않았다.<sup>73)</sup>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었고<sup>74)</sup> 예수의 비유에서도 까마귀는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동물로 여겨졌다.<sup>75)</sup> 그러나 폰 프란츠는 성경을 비롯한 여러 신화에서 까마귀가 신과의 어둡고 신비로운 연결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고 말한다.<sup>76)</sup> 까마귀는 종종 신과 인간 사이의 전령으로 등장하며<sup>77)</sup> 광야에 숨어 있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sup>78)</sup> 그리스 신화에서 까마귀는 태양의 신 아폴로에게 소식을 전하는 동물로 까마귀가 나쁜 소식을 전해오자 아폴로는 까마귀를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꾸어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까마귀가 전한 소식은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의 탄생으로 이어진다.<sup>79)</sup> 북유럽 신화에서 보탄(Wotan)의 양어깨에 앉아 있는 두 까마귀, 후긴(Hugin)과 무닌(Munin)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으고 징조를 읽는 첩자이자 전령이었다.<sup>80)</sup> 폰 프란츠는 까마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까마귀는 따라서 위대한 신의 알지 못하고 어두우며 덜 빛나고 보이지 않는 측면을 가진 전령이다. 펠랑콜리아와 깊은 생각, 악마적인 생각은 서로 매우 가깝다. 고독의 효과는 악마에게 사로잡히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고독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는 예외적인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중심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sup>81)</sup>

<sup>73)</sup> *The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NRSV)(1989) :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창세기 8:7.

<sup>74)</sup> *The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NRSV)(1989) : 앞의 책, 레위기 11:15; 신명기 14:14.

<sup>75)</sup> *The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NRSV)(1989) : 앞의 책, 누가복음 12:24.

<sup>76)</sup>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p251-252.

<sup>77)</sup>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p251-252.

<sup>78)</sup> *The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NRSV)(1989) : 앞의 책, 열왕기상 17:4-6.

<sup>79)</sup> Kerényi K(1997) : *Asklepios: Archetypal Image of the Physician's Exist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재인용 : Edinger EF/김진숙 옮김(2015) : 《연금술의 상징과 심리치료》, 돈화문출판사, 서울, p196.

<sup>80)</sup>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p251-252.

<sup>81)</sup>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252.

연금술사들은 니그레도를 연금술 작업의 시작으로 생각했고 융은 심리치료의 출발점에서 니그레도가 나타난다고 말하였다.<sup>82)</sup> 그림자를 통찰하려는 사람은 그림자에 빠질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sup>83)</sup> 폰 프란츠는 내향화의 첫 단계는 항상 악으로부터의 공격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sup>84)</sup> 융은 “그러나 이 위험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식적 결단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하였다.<sup>85)</sup> 융은 그림자를 보려는 사람은 “좁은 길”의 “고통스러운 협소함”을 견뎌야 한다고 하였다.<sup>86)</sup> 또한 그림자와의 만남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에서의 첫 번째 담력 시험”이며 이 과정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아는 데서 오는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sup>87)</sup> 폰 프란츠는 콤플렉스와 그림자를 다룰 수 있게 된다면 고립은 “내면의 더 큰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sup>88)</sup> 찰스의 서재는 찰스를 고립시키고 그림자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니그레도의 장소이다. 찰스는 서재에서 작품 속 인물들과 대화를 하면서 글을 써 가며 여기에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영화의 마지막에 까마귀는 집안을 자연스럽게 날아다니고 늙은 하녀는 이를 태연하게 쳐다보는 장면이 나온다.

---

<sup>82)</sup> Jung CG(1955) : “III. The Personification of the Opposites”,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ume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 346.

<sup>83)</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a) : 앞의 책, p232.

<sup>84)</sup>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184.

<sup>85)</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a) : 앞의 책, p232.

<sup>86)</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앞의 책, p128.

<sup>87)</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앞의 책, p127.

<sup>88)</sup>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184.

## 그림자

타라는 “스크루지에게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악하게 만들지 말아요.”라고 말한다. 포스터 또한 스크루지가 돈밖에 모를 뿐 악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찰스는 스크루지가 들킬까 두려워서 돈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스크루지가 무엇을 들킬까 두려워하는지는 영화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다. 이는 스크루지가 자신의 비밀을 들킬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찰스 또한 빗쟁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각본가의 의도적인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 찰스의 그림자 이면에는 어린 시절 상처가 있고 그는 이 과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찰스가 타라를 내쫓은 다음 날 오히려 아내에게 왜 타라를 내보냈냐고 화를 내자 아내는 “당신 안에는 두 명의 찰스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친절하고 섬세하고, 다른 하나는 비밀스러운 나. 누구도 알아서도 물어서도 안 되지.”라고 말한다.

꼬마 팀을 되살리라는 타라와 포스터의 말을 듣고 찰스는 고민에 빠진다. 그러나 꼬마 팀을 살리려면 오랫동안 이기적으로 살아온 스크루지가 하루아침에 변해야 하고 그것은 찰스에게는 동화 같은 일이었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그림자에 사로잡힌 찰스에게 그것은 소설에 있어야 할 현실성과 개연성이 부족해지며 책이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반대로 스크루지의 뜻대로 꼬마 팀을 죽도록 내버려 두면 소설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마음속 감정적인 측면을 상징하는 타라의 항의에 직면한 찰스는 결국 막다른 길에 서게 되었다. 폰 프란츠의 말처럼 “그림자에 굴복하면 그는 나쁜 사람이 되고, 굴복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sup>89)</sup> 되는 것이다. 폰 프란츠는 그림자 문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그림자 갈등(*shadow conflict*)’이라고 불렀다.<sup>90)</sup> 그림자 갈등에 갇히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든 틀리게 되며 문제에서 빗겨서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91)</sup> 우리는 무의식으로부터 창조적인 해결책이

---

<sup>89)</sup>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70.

<sup>90)</sup>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70.

<sup>91)</sup>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70.

나오기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으며, 이는 무의식이 자아에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sup>92)</sup> 그림자 갈등은 애초에 옳은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하며 예, 아니오가 불가능한 선택 사이에서 자아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sup>93)</sup> 폰 프란츠에 따르면 그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 모든 것들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한다.<sup>94)</sup>

갈등 속에서 찰스는 고통스러워한다. 공장이 눈에 보일 때마다 시선을 회피했던 찰스는 의식적 결단을 내리고 폐허가 된 구두약 공장으로 향한다. 찰스는 공장에서 그의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 기억을 다시 맞닥뜨리며 스크루지를 만난다. 다음은 영화에서 스크루지와 찰스의 대사를 적은 것이다.

스크루지: 오, 찰리. 이게 바로 자네의 끔찍한 비밀이군. 유명한 작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찰스 디킨스가 한때 초라한 공장 소년이었다니.

찰스: 나 건드리지 마.

스크루지: 혼하디 혼한 하층민에 추잡하고 불쌍한, 아무 데도 쓸모없는 놈! 너 자신을 봐. 뭐가 보여? 응?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빗쟁이의 아들. 누가 너를 돌봐준 적이나 있나? 네 아버지는 결코 아니지. 그는 너를 버렸으니까. 그는 언제나 너를 실망하게 할 뿐이었어. 너 스스로 그렇게 말했지. 단지 네 삶의 족쇄이자 쇠사슬일 뿐이라고.

찰스: 당신 누구야?

스크루지: 날 알잖아, 찰리. 난 굶주림이고 추위이자 어둠이다. 난 네 생각에 드리워진 그림자이고 네 가슴의 상처이며 네 영혼의 얼룩이다. 그리고 난 절대로 널 떠나지 않아.

---

<sup>92)</sup>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p70-71.

<sup>93)</sup>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p70-71.

<sup>94)</sup>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p70-71.

스크루지는 “난 네 생각에 드리워진 그림자이고 네 가슴의 상처이며 네 영혼의 얼룩이다.”라고 말한다. 찰스는 더 이상 스크루지를 자신이 만들어낸 소설 속의 인물로 여길 수 없으며 이제 자신의 그림자로 인식한다. 용은 그림자를 밖으로 투사한 상태에서는 사람이 통일체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만 투사가 거두어지고 그림자가 의식화되면 그의 통일성은 깨어지고 갈등이 시작된다고 하였다.<sup>95)</sup> 용은 또한 그림자가 의식의 영역으로 올라올 때 대극의 긴장과 분열은 “견딜 수 있는 한계점”까지 이른다고 하였다.<sup>96)</sup> 영화에서는 그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스크루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주위를 둘러봐. 넌 여전히 초라한 소년이야. 네 아버지처럼 쓸모없는 사람일 뿐이라고.

**찰스:** .....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가치가 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가치가 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 찰스는 스크루지의 도발에 대한 답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야기한다. 찰스는 아버지의 말처럼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초라한 소년의 기억과 상처, 그리고 다소 경직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있으나 그의 내면에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흐른다. 영화 초반, 찰스는 출판사를 찾아가 “크리스마스 책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 사람들이 닫힌 마음을 열고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또 다른 경쟁 없이 함께 무덤으로 향하는 동료처럼 생각하는 날이니까요.”라고 말한다. 찰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해내고 아버지의 편에 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림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한다.

---

<sup>95)</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a): 앞의 책, p209.

<sup>96)</sup> Jung CG, Jaffé A/이부영 옮김(2012): 앞의 책, p418.

영화감독은 그림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 것일까? 다음은 영화에서 찰스가 경험하는 심리적인 변화의 과정을 유추해본 것이다. 찰스는 현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한 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의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이 있는 집이 어린 찰스의 전부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체포와 함께 찰스는 “신사의 아들”에서 순식간에 “빛쟁이의 아들”이 되고 만다. 찰스는 아버지가 살아내지 못한 그림자에 갇혀 살아가야 했고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따뜻함 대신 아버지의 그림자이자 찰스의 그림자이기도 한 스크루지가 자리하게 되었다. 찰스는 공장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강철처럼 강하게, 얼음처럼 냉정하게” 살아야 했다. 그가 성공한 작가로 살고 있을 때는 외부 현실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페르조나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페르조나가 위협에 처하자 내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실패한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빛쟁이의 아들이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였고 찰스가 성공한 작가라는 페르조나에 집착하면서 그림자인 스크루지가 가진 어둠은 더욱더 짙어졌다. 찰스는 성공이나 실패나의 척도 위에서 갈등하게 되고 그럴수록 그는 더 강박적으로 성공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찰스는 공장으로 찾아가 자신의 어린 시절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대면하기로 결심한다. 찰스의 자아가 무의식의 콤플렉스를 대면하고 스크루지를 자신의 그림자로 인식하면서 찰스는 이제 아버지의 빛과 어둠을 함께 볼 수 있게 된다. 찰스의 아버지는 돈의 질서보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낙관적이고 따뜻하며 가족들과 즐겁게 지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찰스는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되면서 내적으로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인식하게 된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인해 과보상된 부상상이 의식화되고 “아버지라면 이래야 한다”는 찰스의 강박적인 태도가 열어지면서 그는 “족쇄이자 쇠사슬”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성공과 돈의 질서에서 벗어나 크리스마스로 상징되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를 되찾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찰스가 스크루지를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분명하나 뒤이은 스크루지와 의 대결은 다소 성급하게 결론으로 나아간다.

(스크루지의 등 뒤로 무덤과 묘비가 나타난다. 묘비에는 아무 이름도 쓰여있지 않다.)

스크루지: 누구의 무덤이지? 이름이 없군.

찰스: 이름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어? 이 무덤의 주인은 자기밖에 모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어.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사랑이나 기쁨을 느껴본 적도 없고, 삶에서 즐거움을 누려본 적도 없지. 이젠 너무 늦었어. 시간이 됐어, 스크루지. 이제 끝에 왔어.

(어느새 스크루지는 무덤의 어두운 벽들 사이에 갇혀 있다.)

스크루지: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고 잊힌 상태로.

찰스: 너무 늦었어.

스크루지: 늦은 건 없어. 늦은 건 없어. .... 앞으로 진심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할게. 그리고 그 마음을 1년 내내 지키려고 노력할게.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 살게. 세 유명이 내 안에서 함께 힘쓸 거야. 그들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을게. 이렇게 간청할게.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줘.

찰스: 드디어 마지막 챕터에 왔군요. 우리 둘이 멋지게 해낼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긍정적 측면을 수용하자마자 스크루지와 대결에서 찰스는 승리자가 되고 스크루지를 무덤에 밀어 넣고 정죄한다. 찰스는 스크루지를 계몽의 대상이라고 보고 비난을 하며 스크루지는 반성하게 된다. 이러한 전개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과 본 영화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의 공통된 결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찰스는 아버지의 그림자이자 자신의 그림자이기도 한 스크루지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 에로스의 결핍

타라는 스크루지의 숨겨진 마음을 보려 하며 그를 사악하다고 단정 짓지 않는다. 찰스의 친구 포스터 또한 스크루지의 이기적인 모습 뒤에 있는 상처를 보고 그에게 친구나 가족은 없는지 묻는다. 포스터는 자신의 약혼자를 그리워하며 사랑의 시를 쓰는 등 에로스의 영향 아래에 있다. 찰스가 스크루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의 에로스로, 이는 감정의 기능이다. 융은 남성의 심리학에서는 아니마가 이를 담당한다.<sup>97)</sup> 융은 로고스가 사물에 관심을 기울이며 구별하고 해명하는 일을 한다면 에로스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심혼의 관계이며 서로 결합시킨다고 하였다.<sup>98)</sup> 영화에서 여성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안다. 찰스가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자 찰스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처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다. “잔인하게 굴지 말아라, 찰리. 너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몰라. 아버지도 모든 것을 느끼고 있어. 너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 여동생 또한 아버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볼 줄 알고 아버지의 무책임한 모습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안다. 찰스의 아내는 찰스의 부모가 갑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 찰스가 주변에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며 독설을 내뱉을 때 아내는 찰스의 부모와 식사를 한다. 아내는 악몽을 꾸 찰스를 위로하며 아침 햇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며 커튼을 활짝 열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영화 전반에 걸쳐 주변에 머물 뿐이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잠깐 등장하며 아내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 타라 역시 찰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조역에 머물 뿐이다. 이는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찰스 디킨스 개인의 삶을 참고한 것일 수도 있다.

19세기 초 유럽 사회에서 아버지들은 집에 깃연실이나 서재와 같은 자신만의 공간을 두었고 아내나 아이들은 그 문턱을 넘기 어려웠다고 한다. 특히 글을 쓰는 아버지들은

---

<sup>97)</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앞의 책, p192.

<sup>98)</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b): 앞의 책, pp39-58.

자신의 집 전체를 창작을 위한 작업장으로 바꾸고 아내나 딸을 비서로 이용하였다.<sup>99)</sup> 찰스 디킨스의 삶에서도 여성들은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다. 그의 소설에는 가족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동체로 묘사되고 여성들은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만 그려졌다.<sup>100)</sup> 이상화된 가정과 그를 위해 희생하는 여성의 위치로 인해 그의 소설은 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sup>101)</sup> 찰스 디킨스는 가정의 따뜻함과 행복만으로 산업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작품을 썼지만<sup>102)</sup> 실제 디킨스의 삶은 작품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찰스 디킨스와 그의 아내 케이트는 마찰과 가정불화로 이십여 년의 결혼 생활 후에 별거했고 찰스 디킨스는 신문 기사에 모든 가정불화의 책임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글을 실었다.<sup>103)</sup> 아내 케이트는 한 마디 반박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로 낙인찍혔다.<sup>104)</sup> 찰스 디킨스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고 계획이 틀어지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집에서는 그의 말이 곧 법이었다고 한다.<sup>105)</sup> 그는 여성을 존중하고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였고 가정생활에 미숙한 사람이었다.<sup>106)</sup>

## 자본주의와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럴』의 작가 찰스 디킨스가 살았던 시대를 살펴보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크루지는 19세기 초 유럽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인물이며<sup>107)</sup> 찰스 디킨스는 다른 소설에서도 스크루지와 유사한 인물을 그려냈

<sup>99)</sup> Ariès P, Duby G/전수연 옮김(2002): 《사생활의 역사 4》, 새물결, 서울, pp202-205.

<sup>100)</sup> 김택중(2004): 《찰스 디킨스의 런던》, 태학사, 서울, pp212-213.

<sup>101)</sup> 김택중(2004): 앞의 책, pp206-207; pp212-213.

<sup>102)</sup> 김택중(2004): 앞의 책, p210.

<sup>103)</sup> Pearson H/김일기 옮김(2017): 앞의 책, pp427-433.

<sup>104)</sup> Pearson H/김일기 옮김(2017): 앞의 책, pp430-433.

<sup>105)</sup> Pearson H/김일기 옮김(2017): 앞의 책, p425.

<sup>106)</sup> 김택중(2004): 앞의 책, p232.

<sup>107)</sup> Stanwick PA(2016): “The Evolution of Capitalism: A Comparison of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다. 예를 들어, 그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집필하고 약 10년 뒤에 쓴 소설 『어려운 시절(Hard Times)』에는 바운더비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는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악덕 자본가이다.<sup>108)</sup>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을 집필하였던 마르크스는 찰스 디킨스가 어떤 정치가나 사회 운동가보다도 자본주의가 가진 사회 문제를 잘 묘사한 형제라고 치켜세웠다.<sup>109)</sup>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야기한 마르크스와 달리 찰스 디킨스는 스크루지와 같은 자본가들이 개과천선하여 재산과 소유물을 이웃과 나누고 공공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앨틱(Altick)은 빅토리아 시대의 주요한 이데올로기로 공리주의와 복음주의를 꼽았다.<sup>110)</sup>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담(Bentham)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슬로건으로 내세워<sup>111)</sup> 쾌락과 고통의 정도를 산술적인 계산으로 공식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112)</sup>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목표는 인간의 행복이 가진 비합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비교될 수 없으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행복은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19세기 초에는 맬서스주의가 유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공리주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798년 맬서스(Malthus)는 『인구론』을 통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공급이 부족해져 결국 인류의 상당수가 죽게 되리라고 예측했다.<sup>113)</sup> 맬서스주의자들은 점차 정치 세력화되어 1834년 '구빈법 개정령'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그로 인해 세금으로 지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구빈원으로 보내졌다.<sup>114)</sup> 영화에 나

---

*Forum on Public Policy Online*, v2016 n1.

<sup>108)</sup> Dickens C/장남수 옮김(2009): 《어려운 시절》, 창비, 파주, pp29-30.

<sup>109)</sup> Chakraberty P(2014): “Capitalism with a Conscience: A Marxist Echo Found Voice in Charles Dickens’s “A Christmas Carol””, *Global Journal of HUMAN-SOCIAL SCIENCE: G Linguistics & Education*, 14(2): Version 1.0.

<sup>110)</sup> Altick RD/이미애 옮김(2011):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 아카넷, 파주, p185.

<sup>111)</sup> Mill JS/서병운 옮김(2007): 《공리주의》, 책세상, 서울, p24.

<sup>112)</sup> Altick RD/이미애 옮김(2011): 앞의 책, p185.

<sup>113)</sup> Altick RD/이미애 옮김(2011): 앞의 책, p195.

<sup>114)</sup> Altick RD/이미애 옮김(2011): 앞의 책, pp196-197.

오는 신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구빈원으로 보내져야 하며 만약 사람들이 가혹한 노역을 하다가 죽는다면 인구 조절의 측면에서도 잘된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맬서스주의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또한 영화에서 스크루지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쉬면서 월급을 받는다고 비난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근면, 일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노동하지 않으면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도덕률과 부합하는 것이다.<sup>115)</sup> 영화는 스크루지를 19세기의 공리주의와 맬서스주의 및 복음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 그림자 이상의 인물로 그려냈다.

스크루지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으며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만 믿을 수 있다고 한다. 스크루지는 “사실”과 “계산”만 믿으며 자신은 “합리적인 이익 추구하고 자유 시장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한다. 스크루지에 의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이때부터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른다. 돈의 가치는 한없이 드높여졌고 전통적으로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여겨진 것들도 돈으로 평가되고 거래 대상이 되었다.<sup>116)</sup> 샌델(Sandel)은 인도에서는 돈을 지불하면 대리모를 구할 수 있고 기업들은 돈을 내고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얻는 등의 예를 들고 있다.<sup>117)</sup> 이것은 돈이 “무한히 변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sup>118)</sup> 에나프(Hénaff)는 “교환에 기초한 세상에서 돈은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sup>119)</sup> 돈은 친구나 가족과는 달리 직접 접촉해야 하는 부담도 없다.<sup>120)</sup> 짐멜(Simmel)은 “돈은 우리가 사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부담을 점점 더 줄여주는 한편, 동시에 우리가 사물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에 드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한없이 쉽게 만들어준다.”고 하였다.<sup>121)</sup> 우리는 돈을

---

<sup>115)</sup> Altick RD/이미에 옮김(2011): 앞의 책, p255.

<sup>116)</sup> Sandel MJ/안기순 옮김(2012):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미래엔, 서울, p19.

<sup>117)</sup> Sandel MJ/안기순 옮김(2012): 앞의 책, p20.

<sup>118)</sup> Hénaff M/김혁 옮김(2018): 《진리의 가격》, 눌민, 서울, pp36-37.

<sup>119)</sup> Hénaff M/김혁 옮김(2018): 앞의 책, p506.

<sup>120)</sup> Simmel G/김덕영 옮김(2013): 《돈의 철학》, 길, 서울, p381.

<sup>121)</sup> Simmel G/김덕영 옮김(2013): 앞의 책, p826.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대상이 가진 가치를 이미 얻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사랑이나 가족과 같이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여겨졌으나 돈이 이러한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돈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 자본의 질서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회 문제를 돈과 결부시키며 돈을 악의 근원으로 본다.<sup>122)</sup> 돈을 신격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악으로 규정하는 시각 또한 모든 것을 돈으로 설명하려는 유물주의이며 돈의 질서에 갇혀 있는 것이다.<sup>123)</sup> 돈은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 수 있지만, 돈을 백안시하고 돈 없이 살기를 바라는 것은 더 순진하고 위험할 수 있다.<sup>124)</sup> 스크루지를 정죄할수록 우리의 시선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 크리스마스

영화에 언급되는 것처럼 찰스 디킨스의 책 『크리스마스 캐럴』은 크리스마스 전통이 잊혀 가던 시기에 쓰였다.<sup>125)</sup> 19세기 초 영국에서 공장들은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해서 쉬지 않았고<sup>126)</sup>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2월 25일은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영화 속 출판사 직원의 말처럼 크리스마스는 “성직자나 좋아할 뿐” “더 이상 사람들이 기념하지 않는” 날이었다. 17세기 올리버 크롬웰과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의 풍습이 로마 사투르누스 축제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런 풍습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은 이교도적이며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배척하였다.<sup>127)</sup> 청교도가 세력을 잃고 영국

---

<sup>122)</sup> Bruckner P/이세진 옮김(2019): 《돈의 지혜》, 흐름출판, 서울, pp52-53.

<sup>123)</sup> Simmel G/김덕영 옮김(2013): 앞의 책, pp1031-1032.

<sup>124)</sup> Bruckner P/이세진 옮김(2019): 앞의 책, p98.

<sup>125)</sup> Dickens C/Hearn 주석/윤혜준 옮김(2011): 앞의 책, p12.

<sup>126)</sup> Dickens C/Hearn 주석/윤혜준 옮김(2011): 앞의 책, p15.

<sup>127)</sup> Dickens C/Hearn 주석/윤혜준 옮김(2011): 앞의 책, pp12-13.

왕정이 복고되었지만 크리스마스는 이미 “시시한 명절”이 되어버린 뒤였다.<sup>128)</sup> 1843년 12월 19일 『크리스마스 캐럴』이 출판되었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거의 6천 부가,<sup>129)</sup> 다음 해 12월까지 대략 1만 5천 부의 책이 판매되었다.<sup>130)</sup> 찰스 디킨스의 책은 크리스마스 전통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람들은 사라지던 크리스마스 전통을 되살리게 되었고 책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파티 풍경처럼 음악과 춤, 케이크와 칵테일, 오븐구이 닭고기와 파이가 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다.<sup>131)</sup> 매년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모여 칠면조 요리를 먹는 것이 새로운 전통이 되었고 크리스마스는 가족 중심의 명절이 되었다.<sup>132)</sup> 그렇다면 영화는 19세기에 살았던 작가와 그의 책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영화에서 타라는 찰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이승과 저승의 벽이 얇아져서 저세상 유령들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다.”고 말한다. 유령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고대 켈트인의 축제 소윈(Samhain)에 나온다. 소윈 축제는 여름의 끝이자 겨울의 시작인 10월 31일 열렸고 켈트인은 이날 밤 이승과 저승 사이의 문이 열린다고 믿었다.<sup>133)</sup> <sup>134)</sup>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었고 원한이 있는 자들은 유령으로 돌아와 가해자에게 복수하기도 했다.<sup>135)</sup> 축제 기간 사람들은 온갖 곡식과 가축들을 모아 한 해의 추수를 기념했고, 고대 왕들의 신성한 유적지였던 타라의 언덕(Hill of Tara) – 영화의 '타라(Tara)'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한다 – 에 모여 일 년 동안 밀린 빚을 청산하고 재판을 열기도 했다.<sup>136)</sup> 16세기 소윈 축제는 가톨릭 축일과 연결되면서 기독교 전

<sup>128)</sup> Dickens C/Hearn 주석/윤혜준 옮김(2011): 앞의 책, pp14-15.

<sup>129)</sup> Dickens C/Douglas-Fairhurst edited(2006) : *A Christmas Carol and Other Christmas Book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pxx.

<sup>130)</sup> Standiford L(2017) : *The Man Who Invented Christmas*, Broadway Books, New York, p158.

<sup>131)</sup> Dickens C/Hearn 주석/윤혜준 옮김(2011): 앞의 책, p209.

<sup>132)</sup> Standiford L(2017) : 앞의 책, p185.

<sup>133)</sup> 박영배(2017) : 《켈트인, 그 종족과 문화》, 지식산업사, 파주, p165.

<sup>134)</sup> Squire CL/나영균, 전수용 옮김(2009) : 《켈트 신화와 전설》, 황소자리, 서울, p364.

<sup>135)</sup> 박영배(2017) : 앞의 책, p165.

<sup>136)</sup> Morton L(2013) : *Trick or Treat: A history of Halloween*, Reaktion Books, London, p14.

통에 편입되었고 11월 1일의 만성절(All Saints' Day) 하루 전이라는 의미로 'All Hallow's Eve'로 불렸다.<sup>137)</sup> 이는 오늘날 할로윈에 해당하며 할로윈과 만성절, 11월 2일의 만령절 (All Souls' Day)은 'Allhallowtide'로 불리면서 죽은 자를 기리는 명절 기간으로 여겨졌다.<sup>138)</sup>

영화의 각본가는 아일랜드 출신의 하녀 타라를 통해 고대 켈트인들의 소원 축제의 상징을 크리스마스 이브와 연결했다.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관련된 자료에서도 소원 축제와 유사하게 죽음과 관련된 상징이 발견된다. 소원 축제가 겨울의 시작에 열렸다면 크리스마스는 동지(冬至) 축제의 유물이다.<sup>139)</sup>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1월 6일, 3월 25일, 5월 20일 등 예수의 탄생일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sup>140)</sup> 3세기 로마의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제국의 통합을 위해 일신교적인 태양 신학을 들여왔는데 그 결과 고대 태양신들의 생일이 자 동지점으로 여겨진<sup>141)</sup> 12월 25일에 “정복되지 않는 태양신(Deus Sol Invictus)”을 기념하는 축일이 만들어졌다.<sup>142)</sup>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태양신의 열렬한 숭배자였고<sup>143)</sup> 그가 개종한 후 로마 교회는 태양신 축일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공포했다.<sup>144)</sup> 그들은 태양신의 축일과 예수의 탄생일을 같은 날로 맞추어 이교도의 태양신을 기독교에 복속하고자 했던 것이다.<sup>145)</sup> 겨울에 태양신의 탄생일이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태양의 소실은 곧 순환의 종결과 세계의 종말을 의미했고 그래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시기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태양이 사라지지 않을

---

<sup>137)</sup> Morton L(2013): 앞의 책, p11-19.

<sup>138)</sup> *Oxford Living Dictionary* :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Oxford dictionary,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all-hallowtide>)

<sup>139)</sup> Jung CG 엮음/이부영 외 옮김(2013): 앞의 책, p118.

<sup>140)</sup> Kelly JF(2014) :*The Origins of Christmas*, Liturgical Press, Minnesota, pp71-76.

<sup>141)</sup> Frazer JG/이용대 옮김(2003): 《황금가지》, 한겨레출판, 서울, p826.

<sup>142)</sup> Eliade M/최종성, 김재현 옮김(2005): 《세계종교사상사 2》, 이학사, 서울, pp559-561.

<sup>143)</sup> Eliade M/최종성, 김재현 옮김(2005): 앞의 책, p560.

<sup>144)</sup> Kelly JF(2014): 앞의 책, pp79-80.

<sup>145)</sup> Frazer JG/이용대 옮김(2003): 앞의 책, pp826-827.

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sup>146)</sup> 고대의 태양신은 이승과 저승에 모두 연결된 존재였고 세계를 구원하고 갱신하는 태양 영웅은 죽은 자의 세계로 가는 통과의례를 거쳤다고 한다.<sup>147)</sup> 크리스마스는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열린 로마인들의 농신제(農神祭) 사투르누스 축제(Saturnalia)와도 연관된다.<sup>148)</sup> 사투르누스는 경작과 수확의 신이었고 겨울에 열리는 농경 제의는 종종 구년(舊年)과 신년(新年)의 교체기에 행해졌다.<sup>149)</sup> 농경 식물의 풍부한 생식능력과 재생의 힘은 인간사회의 재생과 연결되었고 옛사람들은 농경 제의를 통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도래하기를 기원하였다.<sup>150)</sup>

영화에서 크리스마스는 소원 축제의 상징과 연결되며 “이승과 저승의 벽이 얇아져서” 유령들이 찾아오는 시간, 즉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의 콤플렉스가 의식으로 떠오르는 시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통해 상징을 확충하면 크리스마스는 태양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 일 년 중 가장 춥고 어두운 시기에 위치하며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기를 기원하는 시간이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종합해보면 크리스마스는 의식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무의식의 콤플렉스가 의식화되어 새로운 인격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영화는 크리스마스가 가진 재탄생의 상징적 의미가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크리스마스 캐럴』과 영화에서 스크루지는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더는 이기적이고 인색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태어난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며 심리학적으로 죽음은 “의식적 자아의 죽음”을 의미한다.<sup>151)</sup> 연금술 전통에서 죽음은 니그레도에 해당하며 “암흑, 패배, 고뇌, 절단, 사망 그리고 부패”와 연관되는 “가장 부정적인 작업”으로 여겨진다.<sup>152)</sup> 그러

---

<sup>146)</sup> Eliade M/이은봉 옮김(1996): 《종교형태론》, 한길사, 파주, pp218-219.

<sup>147)</sup> Eliade M/이은봉 옮김(1996): 앞의 책, pp219-220.

<sup>148)</sup> Frazer JG/이용대 옮김(2003): 앞의 책, pp714-716.

<sup>149)</sup> Eliade M/이은봉 옮김(1996): 앞의 책, pp433-434.

<sup>150)</sup> Eliade M/이은봉 옮김(1996): 앞의 책, pp455-456.

<sup>151)</sup> 이부영(2012): 앞의 책, p406.

<sup>152)</sup> Edinger EF/김진숙 옮김(2015): 앞의 책, p177.



나 죽음에는 “성장, 부활, 재탄생”이 뒤따른다.<sup>153)</sup> 세계 각지에는 죽음과 관련하여 재탄생의 신화가 널리 퍼져 있다.<sup>154)</sup> 예로부터 여러 민족의 무덤은 동굴이나 지하에 만들어졌고 땅의 내부로 내려가는 것은 모성을 상징한다.<sup>155)</sup> 죽은 사람의 몸을 담은 관은 종종 '죽음의 나무'라고 불렸다.<sup>156)</sup> 그러나 이 나무는 생명의 나무이기도 하며 탄생, 성장과 뿌리내림, 재생이 이루어지는 모태를 상징한다.<sup>157)</sup> <sup>158)</sup> 나무는 “그들과 은식처를 제공”하여 인간을 보살피며<sup>159)</sup> 낙원의 나무와 북유럽 신화의 이그드라실(Yggdrasill)와 같은 신화의 나무는 인류의 기원을 담고 있다.<sup>160)</sup> 용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세계수의 상징이자 자기 실현의 과정을 나타내는 변환의 상징이며<sup>161)</sup> 영원한 것으로 향하는 인간의 성장을 상징한다.<sup>162)</sup>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찰스는 집안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리키며 “독일어로 'Tannenbaum'이래. 이제 왕실 가족도 하나 두었으니 유행할 거야”라고 말한다. 실제로 1848년에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앨버트 공이 독일에서 가져온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두고 가족 모임을 하는 장면이 신문에 그려졌다고 한다.<sup>163)</sup>

원시 사회의 성인식에는 죽음과 재생의 주제가 나타나는데 성인식을 치르는 젊은이는 무덤처럼 파여진 곳에 눕혀지거나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한 장소에서 상징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했다.<sup>164)</sup> 원시 사면의 입문의례에서도 죽음이 재탄생으로 연결되는 주제를 볼 수

---

<sup>153)</sup> Edinger EF/김진숙 옮김(2015): 앞의 책, p177.

<sup>154)</sup> Jung CG, Jaffé A/이부영 옮김(2012): 앞의 책, p395.

<sup>155)</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a): 앞의 책, pp283-288.

<sup>156)</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a): 앞의 책, p113.

<sup>157)</sup> Neumann E/박선화 옮김(2009):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살림출판사, 파주, pp392-398.

<sup>158)</sup> Jung CG/McGuire W, Hull RFC edited(1977): *C. G. Jung Speaking: Interviews and Encounte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355.

<sup>159)</sup> Neumann E/박선화 옮김(2009): 앞의 책, p392.

<sup>160)</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a): 앞의 책, p113.

<sup>161)</sup> Jung CG/McGuire W, Hull RFC edited(1977): 앞의 책, p356.

<sup>162)</sup>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앞의 책, p236.

<sup>163)</sup> Standiford L(2017): 앞의 책, p189.

<sup>164)</sup> Frazer JG/이용대 옮김(2003): 앞의 책, pp879-885.

있다. 엘리아데(Eliade)에 따르면 샤먼 후보자는 시체와 유사한 상태로 지내는 경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체험, 저승으로의 상징적인 여행 등 제의적인 죽음을 견뎌야 했고<sup>165)</sup> 고통과 죽음, 부활의 통과의례를 거쳐 샤먼이 되었다.<sup>166)</sup> 샤먼은 일차적으로 치유하는 자(healer)였고<sup>167)</sup> 이는 용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 원형과 관련이 있다.<sup>168)</sup> 그리스 신화의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sup>169)</sup> 그는 아폴로에 의해 태어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폴로에게 죽임을 당한다.<sup>170)</sup> 아버지인 아폴로는 빛의 신이자 의술의 신이지만 화살로 도시에 역병을 퍼뜨리는 질병과 죽음의 신이기도 했다.<sup>171)</sup> 아스클레피오스의 스승인 켄타우로스 키톤 역시 그 자신이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상처 입은 치유자였다.<sup>172)</sup>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신전에는 치료의 상징과 함께 죽음의 상징이 발견된다고 한다.<sup>173)</sup> 그가 가진 양면성은 치유의 능력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준다.<sup>174)</sup>

찰스는 상처를 통하여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스크루지는 찰스의 개인적 그림자이자 시대의 그림자로서 찰스는 스크루지라는 그림자를 인식하였으나 통합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스크루지는 죽음을 마주하면서 갑작스럽게 개과천선하게 되고 찰스는 아버지와

---

<sup>165)</sup> Eliade M/이윤기 옮김(1996): 앞의 책, pp78-79.

<sup>166)</sup> Eliade M/이윤기 옮김(1996): 앞의 책, p89.

<sup>167)</sup> 이부영(2012): 앞의 책, pp420-421.

<sup>168)</sup> 이부영(2012): 앞의 책, pp594-597.

<sup>169)</sup> Kerényi K(1997): *Asklepios: Archetypal Image of the Physician's Exist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재인용 : Edinger EF/김진숙 옮김(2015): 앞의 책, p196.

<sup>170)</sup> Groesbeck CJ(1975): “The Archetypal Image of the Wounded Healer”,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20(2) : pp122-145.

<sup>171)</sup> Homer/천병희 옮김(2015b): 《일리아스》, 숲, 파주, p28.

<sup>172)</sup> Groesbeck CJ(1975): 같은 논문.

<sup>173)</sup> Kerényi K(1948): *Der göttliche Arzt, Studien der Asklepios und seine Kultstätte*, Ciba Aktiengesellschaft, Basel. 재인용 : 이부영(2017):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파주, p276.

<sup>174)</sup> 이부영(2017): 앞의 책, pp280-281.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이타심과 가정의 가치를 회복한다. 스크루지가 일 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기리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크리스마스 캐럴』과 영화에서 제시하는 해결은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영화의 마지막에 찰스의 집에서 창문 밖의 사람들에게 까마귀가 날아가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은 찰스가 아직 완전히 통합하지 못한 그림자의 문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의 몫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인 찰스가 소설을 쓰면서 그 스스로 내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설정은 영화의 주제를 드러낸다. 용은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사람들의 마음에 재생의 상징을 불어넣는다고 하였다.<sup>175)</sup>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 유령을 만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영화에서는 스크루지 대신 찰스가 유령을 통해 심리적인 변화를 겪는다. 영화에 등장하는 유령들은 찰스에게 내적인 동요를 일으키고 찰스가 자신의 무의식의 콤플렉스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찰스의 첫 번째 꿈에서 아버지는 네크로맨서로 등장하여 유령 그림을 보여주고 찰스는 이 그림에 두려움을 느낀다. 또한 소설 속 말리 유령과 크리스마스 과거 유령은 찰스에게 말을 걸고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을 마주하게 한다. 영화는 『크리스마스 캐럴』의 스크루지를 단지 소설 속 인물로만 보지 않고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집단의 그림자로 볼 수 있게 하며 찰스가 자신의 소설을 통해 무의식을 대면하게 되었듯이 관객들 또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sup>175)</sup> Jung CG 엮음/이부영 외 옮김(2013): 앞의 책, p118.

##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영화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보고 한 남성의 삶에 닥친 위기와 그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페르조나, 남성 콤플렉스,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의 인식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또한 실존 인물이었던 찰스 디킨스의 전기와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자료를 참조하여 역사적 소재가 영화화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관객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빅토리아 시대는 산업혁명과 도시 발전에 따라 노동 착취와 빈곤이 가장 심화되었던 시대였다. 영화의 주인공 찰스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통해 스크루지라는 그림자를 갖게 되고 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게 되고 가족과 화해하게 된다. 영화는 찰스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쓰면서 겪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 개인의 삶으로 흘러들어온 자본주의의 문제가 개인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통해 시대를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지속되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았다. 찰스가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가장 어둡고 추운 날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들여다봄으로써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택중(2004): 《찰스 디킨스의 런던》, 태학사, 서울.
- 박신, 김계희(2015): 《부성 콤플렉스 - 분석심리학적 이해》, 학지사, 서울.
- 박영배(2017): 《켈트인,그 종족과 문화》, 지식산업사, 파주.
- 이부영(1999): 《그림자》, 한길사, 파주.
- 이부영(2011):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 이부영(2012):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파주.
- 이부영(2017):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파주.
- Altick RD/이미애 옮김(2011):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 아카넷, 파주.
- Ariès P, Duby G/전수연 옮김(2002): 《사생활의 역사 4》, 새물결, 서울.
- Bruckner P/이세진 옮김(2019): 《돈의 지혜》, 흐름출판, 서울.
- Dickens C/Hearn 주석/윤혜준 옮김(2011): 《주석달린 크리스마스 캐럴》, 현대문학, 서울.
- Dickens C/김옥수 옮김(2018): 《데이비드 코퍼필드 1》, 비꽃, 서울.
- Dickens C/장남수 옮김(2009): 《어려운 시절》, 창비, 파주.
- Edinger EF/김진숙 옮김(2015): 《연금술의 상징과 심리치료》, 돈화문출판사, 서울.
- Edinger EF/장미경 옮김(2016): 《자아발달과 원형》, 학지사, 서울.
- Eliade M/이윤기 옮김(1996): 《샤머니즘》, 까치글방, 서울.
- Eliade M/이은봉 옮김(1996): 《종교형태론》, 한길사, 파주.
- Eliade M/최종성, 김재현 옮김(2005): 《세계종교사상사 2》, 이학사, 서울.
- Frazer JG/이용대 옮김(2003): 《황금가지》, 한겨레출판, 서울.
- Hénaff M/김혁 옮김(2018): 《진리의 가격》, 눌민, 서울.
- Homer/천병희 옮김(2015a): 《오뒷세이아》, 숲, 파주.

- Homer/천병희 옮김(2015b): 《일리아스》, 숲, 파주.
-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1): 융 기본 저작집 1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숲 출판사, 서울.
-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융 기본 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숲 출판사, 서울.
-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a): 융 기본 저작집 3 《인격과 진이》, 숲 출판사, 서울.
-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7): 융 기본 저작집 4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숲 출판사, 서울.
-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b): 융 기본 저작집 6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숲 출판사, 서울.
-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a): 융 기본 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숲 출판사, 서울.
-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b): 융 기본 저작집 9 《인간과 문화》, 숲 출판사, 서울.
- Jung CG, Jaffé A/이부영 옮김(2012): 《C. G. Jung의 회상,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파주.
- Jung CG 엮음/이부영 외 옮김(2013):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 Mill JS/서병운 옮김(2007): 《공리주의》, 책세상, 서울.
- Neumann E/박선화 옮김(2009):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살림출판사, 파주.
- Pearson H/김일기 옮김(2017): 《찰스 디킨스 런던의 열정》, 멘데테로, 서울.
- Sandel MJ/안기순 옮김(2012):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미래엔, 서울.
- Sanford JA/심상영 옮김(2015): 《융 심리학 · 악 · 그림자》,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 Sanford JA/심상영 옮김(2018) : 《용 심리학과 신비로운 기독교》,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 Simmel G/김덕영 옮김(2013) : 《돈의 철학》, 길, 서울.
- Squire CL/나영균, 전수용 옮김(2009) : 《켈트 신화와 전설》, 황소자리, 서울.
- von Franz ML/이부영, 이광자 옮김(2018) :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융연구원, 서울.
- Zoya L/이은정 옮김(2009) : 《아버지란 무엇인가》, 르네상스, 서울.
- Archive for Research in Archetypal Symbolism(ARAS)(2010) : *The Book of Symbols. Reflections on Archetypal Images*, Taschen, Koln.
- Chakraberty P(2014) : “Capitalism with a Conscience: A Marxist Echo Found Voice in Charles Dickens’s “A Christmas Carol””, *Global Journal of HUMAN-SOCIAL SCIENCE: G Linguistics & Education*, 14(2) : Version 1.0.
- Dickens C/Douglas-Fairhurst edited(2006) : *A Christmas Carol and Other Christmas Book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Groesbeck CJ(1975) : “The Archetypal Image of the Wounded Healer”,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20(2) : pp122-145.
- Hockley L(2007) : *Frames of mind: A Post-Jungian Look at Cinema, Television and Technology*, Intellect Ltd, Chicago.
- Izod J(2001) : *Myth, Mind and the Screen : Understanding the heroes of our t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Jung CG(1935) : “The Tavistock Lectures”,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ume 18, The Symbolic Life: Miscellaneous Writing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Jung CG(1949) : “The Significance of the Father in the Destiny of the Individual”,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ume 4, Freud and Psycho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Jung CG(1955) :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ume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Jung CG/McGuire W, Hull RFC edited(1977) : *C. G. Jung Speaking: Interviews and Encounte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Jung CG/McGuire W edited(1984) : *Dream Analysis: Notes of the Seminar given in 1928-1930*, Routledge, London.
- Kapcár A(2015) : “The Origins of Necromancy or How We Learned to Speak to the Dead”, *Sacra*, 13(2) : pp30-58.
- Kelly JF(2014) : *The Origins of Christmas*, Liturgical Press, Minnesota.
- Kerényi K(1948) : *Der göttliche Arzt, Studien der Asklepios und seine Kultstätte*, Ciba Aktiengesellschaft, Basel.

Kerényi K(1997) : *Asklepios: Archetypal Image of the Physician's Exist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Morton L(2013) : *Trick or Treat: A history of Halloween*, Reaktion Books, London.

*Oxford Living Dictionary* :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Oxford dictionary,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all-hallowtide>)

Standiford L(2017) : *The Man Who Invented Christmas*, Broadway Books, New York.

Stanwick PA(2016) : "The Evolution of Capitalism: A Comparison of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Forum on Public Policy Online*, v2016 n1.

*The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NRSV)(1989) :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von Franz ML(1980) :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Redemption Motifs in Fairytales*, Inner City Books, Toronto.

von Franz ML(1995) : *Shadow and Evil in Fairy Tales*, Shambhala, Boulder.



## 영문요약

This article is about the film titled <The Man Who Invented Christmas>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The film describes the changes of Charles Dickens while he wrote the book 『A Christmas Carol』. The book was published when the Christmas traditions were almost forgotten. However, 『A Christmas Carol』 revived the tradition of having Christmas meals with family and enlightened the values of love-thy-neighbor. The article elucidates the process of recognizing the shadow while Charles Dickens overcomes the life crisis of losing his persona. By referring to the biography of Charles Dickens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his time, the article explores how the collective issues of capitalism influence his mind and personal life. For those who face the dark side of capitalism, Christmas is a timeless symbol that has a meaning of death and rebirth and signifies introversion to be reborn into a new personality.

## KEW WORDS

Christmas, Charles Dickens, Film, Shadow, Father, Birth